

학원전도 전략에 관한 연구

김 정 훈*

- I. 서 론
- II. 학원전도의 전략들
 - 1. 예배를 통한 전도
 - 2. 상담을 통한 전도
 - 3. 전도·방문·모임·제자훈련을 통한 전도
 - 4. 성서 교육을 통한 전도
- III. 성서교육을 위한 교재
 - 1. 성서교육을 위한 교재모델
 - 2. 교육실시에 있어서 기술
- IV. 결 론

I. 서 론

학교의 교목은 종교적인 기능의 임무를 다하는 책임자이다. 기독교 학교에 있어서 교목의 신분과 사명은 성직자로서 종교를 대표하는 대표자이고 성경을 강의하는 교수다. 친절 봉사, 동정심, 겸손은 물론 백절불굴의 신앙과 존경심 그리고 정의를 가르치며 종교적 지도자로서 그의 직무에 관계되는 임무를 수행하여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목자이며, 교회의 성숙한 성원이 되게 하는 교사이다.

본 논문은 학원 복음화를 위한 전도전략들로 예배행위와 상담, 전도의 의의와 방법, 그리고 방문·모임·제자훈련에 이어 성서교육을 통한 전도 전략을 기술하고자 한다.

예배의 기독교적 근거로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잇는 대제사장의 칭호를 받으신 것은 그의 승천 이후의 일이지만 예수의 지상생활 전체가 예배적인 삶이요, 또, 그의 생애에 있어서 이룩하신 완전한 예배의 행위가 그의 직무(Ministry)에서 이루어졌다면 예배란 학원 복음화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효과적인 예배활동을 연구한다. 그리고 목사는 성경에서 목자라 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상담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과연 교목은 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상담자로서의 자격과 상담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목자의 순서에 따라 전도·방문·모임·제자 훈련 그리고 성서교육의 중요성을 논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학원전도를 위한 이상적인 성서교육 교재를 위한 신학적 입장과 성서교육을 위한 교재 모델을 제시 하려고 한다. 오늘날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서적이

* 관동대학 교양학부, 부교수

요. 복음주의적인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여러 종류의 교재를 내놓는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 교육 기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연구 부문에서 펴낸 많은 책은 소위 학구적인 자료가 결핍하지 않은 반면에 학생에 입장에서 볼 때 이 자료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학적이요, 세밀하다.

이 논문은 단순하고 간결하며 혼잡한 것을 피하고 성서의 내용 가운데서 구속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성서가 어떠한 책이라는 것과, 그 속에 나타난 사건을 쉽게, 그리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하는 교재의 구상이다.

사실 성서는 기독교 신앙의 표준으로써, 특히 개신교에 있어서의 신앙은 “오직 성서만으로(Sola:Scriptura)”라는 주장에 근거되어 있다. 신앙의 원리로써의 유일무이한 성서가 기독교 신앙의 객관적 근거이기 때문에 이 성서는 신앙의 상대주의 혹은 신앙의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억제하며 신앙 본질의 내적 통일성(Unity)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책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서교육의 중요성은 참으로 지대하다.

이 논문은 역사의 선상 위에서 창조주 하나님, 타락한 인간,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화해자 예수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입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성서 교육을 위한 신학적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예배를 통한 전도

1) 예배의 정의와 기독교적 근거

예배(Worship)라고 하는 말은 가치(Worth)와 신분(Ship)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를 말한다.

성서적인 용어인 영광 즉, 카보드(Kabod)는 하나님의 “존귀”와 “무게”를 말하는 히브리어에서 왔고 이 영광은 신약성서에서 독사(δόξα)라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가치 평가를 표현한 말이다.

예배로 번역된 구약성서의 중요한 용어는 “굴복하는 것” 또는 자신을 엎드리는 것을 뜻하는 샤하이(Shahah)라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머리숙여 경배(예배)했다”(출 4:31). 신약성서에서 가장 흔히 예배를 가르키는 헬라의 용어는 프로스쿠네오(προσκυνέω)이고 문자적인 의미는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 또는 “존경의 표시로서 다른 이 앞에 자신을 엎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기독교적 근거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잇는 대제사장의 칭호를 받으신 것은 그의 승천 이후의 일이지만¹⁾ 사실 예수의 지상 생활 전체는 예배적인 전지에서 지냈다고 보

1) “여호와께서 내 주께 선언하셨다. 내 오른 편에 앉아 있으라……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라”(시 110:1, 4, 히 5:10, 6:20, 행 2:34, 히 1:3, 13, 롬 8:34 등)

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생활이 예배적인 생이었고 제사장적인 생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완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선교 생활인 공생애에서 이 일은 완성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악마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13 : 8), 그의 죽음은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롬. 5 : 10). 그리고 그의 죽음은 선교의 정점이 된다. 신약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예수의 역사적 선교와 그의 생애가 예배적인 과정을 가지며 사실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 예배의식(The Liturgy)이요, 예배생활(The Life of Worship)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식(Liturgy)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예물을 드리심으로 거룩해진 자들을 계속하여 완전케 하시는”(히. 10 : 14) *ἐφάπαξ*(At Once, At one Time)에서 정점을 이루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전체, 곧 성육을 위한 준비로 부터 승천까지 그가 영광중에 오시는 날 까지의 모든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창세전에 미리 알려진 바 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선택함을 받은 자를 위해 나타나신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벧전. 1 : 19)이라고 했다²⁾.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간의 타락과 원죄를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안에서 씻어주신 신비적인 사건이다. 이 흠과 티가 없는 어린양은 아담의 범죄로(창. 2 : 17) 하나님의 정벌 아래 놓여 있는 인류의 대피소가 되신 것이다.

다음으로 예배의 기독교론적 근거는 예수께서 그의 생애에서 이룩하신 완전한 예배의 행위인 그의 직무(Ministry)에서 이루어 진다. 교회는 이 메시아적인 예배를 기념할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예배를 나사렛 예수의 성육신과 연결시키고 그의 말씀과 생애와 복음과 부활을 통해 역사적으로 설정된 제도에서 뿌리를 찾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교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를 반영시킨 것이며 거기서 그 전적인 가치를 끌어낸 것임을 히브리서신과 요한서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승천은 왕으로서의 행진(Royal:Procession)만이 아니고 예배의식의 행진(Liturgicol Procession)이며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 들어 가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교 예배의 기독교론적 근거를 확인하려고 할때, 우리는 예배에 대한 신약성서의 증거의 중요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은 하늘의 예배를 반영시킨 것이며 그리스도교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하늘의 제사를 드리신 것을 반영하는 것

2)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상을 요한 계시록 13 : 8에서 찾아도 좋을 것이다. 로마이어(E. Lohmeyer)는 천지창조 때부터(*ἀπό καταβολής κόσμου*)를 죽음을 당한 어린양(*του αρνιου εσφαγμένου*)과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계시록 17 : 8에 있는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생명책(*ου εγγραπται το ονομα εν τω βιβλίω της ζωης*)에 연결되어야 한다.

이다.³⁾

그러므로 교회예배의 기독교적 근거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영화(Glorification)에 의하여 행해진 땅위의 예배와 영광중에서 행하여진 하늘의 예배로 이중적인 근거가 있다. 그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예배를 드리신다.

히브리서 7:3절의 “언제까지나”(εις τὸ ἀήρωςες)와 고린도전서 11:25의 “마실 때 마다”(οσακις ἐὰν πινῃ)는 하늘의 예배로 땅위의 중단없는 예배와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늘의 성전”⁴⁾과 “제단”⁵⁾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다(계. 21:22).

이 장에서는 학원복음화의 활동으로 대학 내에서의 효과적인 예배행위를 논하려고 한다. 대학 커리큘럼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전교수 및 직원이, 그리고 학생이 아침 예배 및 채플에 참석하여 메시지를 듣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⁶⁾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한 말씀인 동시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은 지 2,00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복음전도를 위한 성서적 근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⁷⁾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⁹⁾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¹⁰⁾ 등의 성경 귀절을 생각할 수 있다.

3) 요약 계시록을 보면 하늘의 예배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러질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하신 어린양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장 고귀하게 드러지며, 이 어린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심이 당연 하옵니다”(마 5:12)라고 했다. 그리고 이 찬양은 그리스도께서 결코 거절하시지 않았으며, 이미 그의 탄생(마 2:11)에서부터 그의 부활(눅 24:52)에 이르는 지상적인 그의 성업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4) 요한계시록 7:15, 11:19, 14:17, 15:5, 15:8.

5) 요한계시록 6:9, 8:3, 8:5, 9:13, 14:18, 16:7.

6) 마태복음 28:19-20.

7) 요한복음 28:19-20.

8) 마가복음 16:15.

9) 마태복음 28:18-19.

10) 고린도전서 9:16.

이렇게 생각할 때 복음화를 위한 노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복음전도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과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의 제자가 되게 하고 교회의 책임있는 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성서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선교의 산물이며 직접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요, 또 이 복음선교가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이다. 윌리엄 템플은 예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하여 양심을 각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로써 지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의하여 상상력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뜻을 바치는 것이다.”¹¹⁾ 라고 하였다.

대학예배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예배에는 부족감이 있다할지라도 여러가지 형태의 예배 행위를 실시함으로써 학원 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예배 행위가 없이는 극소수의 교목이 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만날 수 없으니 전할 수 없고, 전할 수 없으니 믿을 수가 없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 예배 제도를 통하여 교목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2) 대학에서의 예배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배행위를 실시함으로써 학원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다.

교직원 예배 : 교수와 직원이 출근과 동시에 채플실에서나 소강당에서 간단한 예배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교수들에게 우선 말씀을 선포하여 믿게 할 때 상향식 전도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수가 복음화될 때, 학생의 복음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고로 교목은 상향식 전도에 교수인 전도 요원을 양성할 때 전도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짧고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더 무게있고 힘있는 메시지를 준비하여 삶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행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강조해야 한다.

학생예배 : 학생예배란 C.C.C., I.V.F. 등 우선 먼저 기독교 학생 씨클이 매일 아침 예배 활동을 가짐으로써 친교가 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배움의 목적과 신앙인의 자세를 확립할 수가 있다. 그리고 씨클 가입 권장을 통해서 개인 전도에 힘쓰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기채플 시간 : 기독교 대학에 있어서 학생의 채플은 타 대학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여기서 교목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에게는 약간의 거부감도 있지만 기독교 대학에 입학한 이상 곧 단념하고 별 문제없이 학생들은

11) William Temple. *The Hope of a New Word* (New York: The Maemillan Co., 1942), p. 30.

채플에 참가하게 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채플의 운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세지에 중점을 두고 자기 성장을 위해 경청하며 예배를 드리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지만 단지 형식적 이라면 좋은 예배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채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진정한 예배로 실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고안해야만 할 것이다.

수요 채플 시간: 수요 채플은 교육 방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오 12시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학교 교육방송을 통해 약 10분간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간단한 찬송을 방송한 다음 교목이 메세지를 전하고 기도로 마치면, 학생들은 어디서든지 메세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것도 소수의 교목이 자주 학생을 만나지 못하는 문제성을 방송 전파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 방송 설교 후 설물지를 작성하여 청취도를 조사하면 그 반응도를 더욱 잘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절기예배: 기독교의 절기 예배라 함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이 그것이다.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강조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되며 인간세계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 절기예배를 통해서 이웃돕기 헌금을 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이웃돕기를 실시함으로써 학원 전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대학 교회 운영: 학교의 교목은 대학교회의 예배를 실시 할 수 있다. 꼭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없다 할찌라도 적당한 장소를 정하여 예배행위를 가짐으로써 신앙이 성장되고 교회가 자라나며 학원전도에 큰 기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 상담을 통한 전도

1) 상담과 상담목적

상담은 인간의 문제를 직접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¹²⁾이라고 하였다. 성경은 목사를 목자라고 부른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귀중한 단어이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¹³⁾라고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되어 있다. J. 아담스는 그의 목회 상담학에서 이 귀절을 삼단논법으로 쓴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이다.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알고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핀다.¹⁴⁾

12) 박성수, 현대인의 심리와 카운셀링(서울: K.B.S. 1982), p. 12.

13) 시편 23: 1.

14) "필요"(Need)와 "욕구"(Desire) 또는 욕망(Drive)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필요"라는 말은 "욕망"의 동의어로 너무 자주[(심지어 크리스찬들 까지도, cf. *Bakers Dictionary*, New York: Science House), 1967, p. 234] 사용되어 왔다. 모든 진실한 필요는 충족되어야만 하지만 피 상담

그러므로 그의 많은 양들 가운데 하나인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목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양들을 지켜 주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 상담의 주구성원을 보면 양과 목자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¹⁵⁾을 보내시리라고 확증하셨다. “또 다른”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 동일한 종류의 또 하나를 의미하는 특수한 어휘이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모사”¹⁶⁾는 상담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리라는 사실을 그들에서 확정함에 따라 그들의 두려움을 잠잠하게 하셨다.¹⁷⁾

“요한복음에 나오는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를 변호자(Advocate), 상담자(Counselor), 원조자(Helper), 중생자(Intercessor)로 번역하는데 요한은 이 상담자를 성령, 즉 진리의 영으로 동일시 하였다.”¹⁸⁾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상담의 구성원은 최소한 3명이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을 떠나서 올바른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할 수 없다. 대학 교목실에서는 학원복음화를 위하여 신앙 상담소를 운영해야 한다. 신앙상담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해결의 열쇠를 주는 것이다. 신앙을 권장하고 교회를 알선하며 나아가 삶의 사기를 진작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 그 결과로 많은 젊은이들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역을 위해서 교목에게 상담이란 필수적인 것이다.

2) 상담의 방법

성령은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¹⁹⁾ 것과 꼭 같은 종류의 다른 상담자로²⁰⁾ 오셔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계시는 보혜사(상담자)라고 명명되는 분이다.

불신자들이 상담을 하는 것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상담활동에 대하여 무지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교목실의 상담은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는 사역과 성화시키는 사역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령은 거룩하다고 불리워 진다.

자가 욕구와 욕망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은 목회상담자의 의무일 것이다. 그의 진정한 필요는 갖은 욕망의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자제나 인내를 배우려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마음을 정화시키는데 필요한 잠언 16 : 23과 15 : 28을 참조하라.

15) 요한복음 14 : 16-17.

16) 이사야 9 : 6, 11 : 2.

17) 요한복음 14 : 26, 16 : 13, 16 : 7-15.

18) J.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김용준 역), 서울 : 보이스사, 1982, p.28.

19) 이사야 9 : 6에서는 그리스도 역시 “상담자(Counselor)”라고 부르고 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그의 제자들의 상담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성령께서 기록하다고 불리워지는 사실은 그가 다른 모든 영들 특히 불결한 영과 구별된다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기록함의 근원이시라는 이유에서이다.²¹⁾

그러므로 인간의 삶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으로 부터 기록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며²²⁾ 모든 것은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목표라고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상담에 있어서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필요성을 제거해 버린다면 피 상담자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힘을 던져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절망으로 인도하는 상담이 된다. 그러므로 상담자들은 사도 바울같이 피 상담자들 앞에서 삶의 가능성과 도전을 분류해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²³⁾ 이러한 말씀에 한 피 상담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극적 변화를 위한 잠재력의 소망과 우리가 그 안에서 솟아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노예의 삶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상담이다.

그리고 상담자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신대로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재 확인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또 피 상담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근본적 변화를 위한 가능성을 인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서 불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담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권위적 방법 : 이 방법은 명령, 지시, 금지등 삶의 문제를 특정한 양식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고 따르게 하는 방법이다.²⁴⁾ 이 방법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 있을 뿐 비판적 사고나 태도를 억제한다. 이 권위적 방법을 적용할 때 개인의 심리적 필요가 존중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 자체는 권위있는 교훈을 동반하는 것이고 권위있는 교훈은 직접적이고 권면적인 것을 사용함을 요구하고 있다.

• 이지적인 방법 : 충고, 설득, 지적설명등 이지적 방법에 속하는 심리적 문제해결의 방법이다.²⁵⁾ 이지적 방법은 지식을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 방법

20) 회랍어로는 “같은 종류의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21) “거룩한”(Holy)은 “—로부터 떨어져”(Set apart from and to) 즉 “특별한(Special) 혹은 독특한(Unique)을 의미한다.

22) J.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김용순 역), 서울 : 보이스사, 1962, p. 33.

23) 로마서, 6 : 11

24) 박성수, *현대인의 심리와 카운셀링*(서울 : K.B.S., 1982), p. 13.

25) 上揭書, p. 15.

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또 인간을 의존적 존재로 만들기도 하고 독립심,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충고를 기울이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러나 교목은 인내를 가지고 충고하고 전해야 한다.

• 표현적 방법 : 도덕적 실수나 종교적 죄를 범하여 고통이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숨김없이 말할 때 이를 용서하는 자세로 들어주게 되면 이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상대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를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상과 같은 방법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사용하는 재래식 상담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전문적인 카운셀링 방법을 연구하여 문제 자체의 초점에서 인간 내면문제의 초점으로 들어가 더 전문적인 카운셀링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3) 상담의 효과

상담의 효과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²⁶⁾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존재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생성하는 존재이다. 기독교적 삶은 정적인 삶이 아니라 변화의 삶이다.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순례자요, 낮은 사람이다. 그는 하늘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하늘도성에 도착하지 못했다. 상담의 효과는 인간이 범죄적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어렵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²⁷⁾ 이러한 자기 부정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이다. 성화는 인간 자신의 욕망이 매일 매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도 바울도 성장을 위한 투쟁을 묘사하였다.²⁸⁾ 변화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가 존재해야만 한다. 변화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끈질긴 인내를 통해서 성취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망이 존재해야 한다.²⁹⁾

26) 골로새서 3:8-12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참조.

27) 마태복음 16:24.

28) 로마서 7:14-25.

29) 성경에서 소망은 항상 신뢰적인 기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Hope-So)라는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Strupp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치료학자의 임무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부적절한 양식들을 고쳐 배우는 것과 새롭고 덜 상충되는 양식들을 배우는 것에 대한 환자의 고집스러운 무의식적 반대이다. 근본 문제는 환자의 인격 구조의 영속적인 수정을 성취하기 위한 선택적 절차들을 탐구하는 것이다. Psychotherapy; *Clinical Research and Theoretical Issues* (New York: Jason Aronson Inc. 1973), p. 38. 기독교 소망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들어 있는 바 그 안에서 그와 같은 선택적 절차들이 발견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탐구는 끝난다.

상담자는 무슨 동기의 근거에 의거하여 피상담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으며 그에게 그러한 성경적 행동의 자극을 줄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피상담자는 그리스도에게로 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그 자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촉구받을 수 있다.³⁰⁾ 크리스찬의 고상한 부름받음은(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라고 하는 부름받음) 그 자체가 거룩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기가 된다. 상담의 효과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데 있다.

상담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담을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성구는 하나님이 상담자임을 우리에게 교훈한다.

1.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출. 55 : 21)
2.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 (시. 5 : 12)
3.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신다. (롬. 8 : 26)
4.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신다. (행. 9 : 31)
5.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 (고전. 12 : 3)
6.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요. 26 : 13, 고후. 5 : 14)
7.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신다. (벨전. 5 : 7)
8.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신다. (엡. 1 : 18)
9.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신다. (고후. 8 : 16)
10.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고전. 6 : 11)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시. 34 : 18)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상담자가 되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출. 15 : 26).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목회자는 잊어서는 안 된다.

4) 상담의 자료목록

상담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사용한다. 이 자료카드는 상담자만이 사용하게 된다. 상담을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다음 사항을 솔직하게 기록하게 한다. 만일 부부가 함께 왔으면 각기 다른 카드에 기록하게 한다.

30) 로마서 12 : 1.

인 적 사 항

성 명 : _____ 주 소 : _____

본 적 : _____ 전 화 : _____

직 업 : _____ 사무실전화 : _____

성 별 : _____ 생년월일 : _____ 연 령 : _____ 몸무게 : _____ kg

결혼관계 : 미 혼 · 약 혼 · 결 혼 · 별 거 · 이 혼 · 사 별

교육(최종학벌에 ○표 하십시오)

국민학교 1, 2, 3, 4, 5, 6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대학교 1, 2, 3 대학원 1, 2 대학원이상

기타 훈련(훈련받은 직종과 연한)

건강상태(해당사항에 ○표 하시오)

매우건강 건 강 보 통 나 썸 기 타

평균체중 kg

늘었을 때 kg 줄었을 때 kg

병력 : _____

종합진단 받은날 : _____ 결 과 : _____

의사이름 : _____ 병원주소 : _____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있다면 약이름 : _____

약의 효과가 있는가? (예) (아니오) (모르겠다)

처방해준 약사 이름 : _____ 주소 : _____

정서장애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 (예) (아니오)

있다면 상담자, 치료자 이름과 그 날짜 : _____

구류된 일이 있는가? (예) (아니오)

종교적 배경 : _____

교파이름 : _____

월 평균 교회 출석회수 : 0 1 2 3 4 5 6 7 8 9 10 10이상

주일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가? (예) (아니오) (졸업)

세례 받음 : _____ 안 받음 : _____

배우자의 종교적 배경(기혼자만 기재)

당신은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되는가? (예) (아니오) (잘모르겠다)

하나님을 믿는가? (예) (아니오) (잘모르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안한다) (가끔한다) (자주한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 (아니오) (관심없다)

성경을 읽는가? (안 읽는다) (가끔 읽는다) (자주 읽는다)

최근에 와서 종교 생활에 변화가 있는가? 있다면 기록하라

심 리 상 태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가? (예) (아니오)

사람들이 당신을 질시한다고 생각하는가? (예) (아니오)

색깔이 너무 밝다고 느끼는가? 어둡다고 느끼는가?

당신은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예) (아니오)

환각이니 환청 환시, 환상을 경험했는가? (예) (아니오)

동행자를 두려워 하는가? (예) (아니오)

결 혼 관 계(기혼자만 기록하시오)

배우자 성명 : 주소 :

전화 : 직업 : 사무실전화 :

배우자가 상담하러 오는 것을 좋아하는가? (예) (아니오)

별거한 적이 있는가? (예) (아니오) (언제)

결혼일자 :

결혼한 나이 : 남편 아내

결혼하기전 교제기간 : 년 월

약혼기간 : 년 월

결혼전 교제 관계를 간단히 쓰시오 :

이혼한 날짜 :

자 녀 관 계

이	름	나	이	성	별	교	육	정	도	결	혼	관	계

배우자 나이 : _____ 학 별 : _____ 종 교 : _____

양친관계 : _____

부모이외의 다른 사람에게서 양육되었는가? (간단히 설명) _____

부모나 양육자에 관해 다음 사항에 기록하십시오. _____

생존(예, 아니오) 아버지 어머니 _____

종교 아버지 : 어머니 : _____

월 평균 교회 출석 회수 : 아버지 1, 2, 3, 4, 어머니 1, 3, 4 _____

직업 : 아버지 어머니 _____

부모가 동거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_____

만일 별거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_____

별거한 날짜 : _____

부모의 결혼 생활? (불행하다) (보통이다) (행복하다) (대단히 행복하다) _____

어렸을 때 누구와 가장 가까웠는가? 아버지 어머니 기타 _____

당신의 어린시절? (대단히 행복했다) (행복했다) (보통이었다) (불행하다) _____

형제자매는 몇 명인가? _____

연상의 형님과 누이는 몇 명인가? _____

다음 질문에 간단히 답하십시오.

1. 당신의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담의 이유) _____
2. 당신은 그 문제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_____
3.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_____
4.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 합니까? _____
5.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_____
6. 우리가 알아야 할 다른 정보가 있습니까? _____

3. 전도 · 방문 · 모임 · 제자훈련을 통한 전도

1) 전 도

구약에 있어서는 개심자를 얻기 위한 개인 전도가 별로 없었다. 유대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백성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의 말씀을 떠나 도덕적 부패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보면 원숙된 복음전도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께서 집단적 전도나 개인 전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본을 강력히 촉진함에 있어서 문서를 사용했다. 성서에 나타난 복음전도라 하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헬라이어 단어를 생각할 수 있다.

1) 유앙겔리조(*Εὐαγγελίζω*) :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우리말로 복음이다.³¹⁾

2) 캐룟소(*κηρύσσω*) : 이 말은 “예고한다”라는 뜻이다. 임금의 법령을 알리기 위해서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돌아다니는 “전령사”를 묘사한 말이다.³²⁾

3) 디다스코(*διδάσκω*) : 이 말은 “가르치셨다”는 말이다. 대화의 형식으로 위대한 영적 진리를 예수님은 설명하고 해명해 주셨다.³³⁾

4) 말투스(*μάρτυς*) : 이 말은 “증인(Witness)”이란 말이다.³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³⁵⁾는 증인의 뜻은 엄밀한 의미에서 “증명” 또는 “증언”을 말한다. 그리스도교가 참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이요, 살아있는 “신임장”이란 말이다. 그리고 이 증인이란 낱말에서 “순교자”란 말을 갖게 되는데 순교자는 자신의 피로써 자기의 증거를 뒷바침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증인은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³⁶⁾

5) 마테테스(*μαθητής*) : 이 말은 “제자”라는 말이다.³⁷⁾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다.

이상의 모든 낱말을 축소시키면 “선전”이 되는데 선전이란 곧 복음전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듣는 자들을 제자로 만들려는 뚜렷한 목적으로써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다.

학원 전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설교로써 전하고 교육으로 가르치며 또 연 2회씩 특별 신앙 강좌를 한다든가, 춘계, 추계 전도강연을 통해서 메세지를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문서 전도 활동으로써 기독교생을 통하여 캠퍼스 노방전도를 실시할 수 있다.

2) 방 문

예수께서는 친히 집들을 방문하여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다. 남녀 사람들과 더불어 그

31) C. E. Aurrey, *Basic Evangelism*, 정진항 역(서울 : 침례회출판사, 1960), p. 35.

32) *Ibid*, p. 36.

33) *Ibid*, p. 36.

34) *Ibid*, p. 36.

35) 사도행전 1 : 8.

36) C. E. Aurrey, *Basic Evangelism*, 정진항 역(서울 : 침례회출판사, 1980), p. 36.

37) *Ibid*, p. 36.

38) 사도행. 20 : 20.

들 영혼의 복지에 관하여 사적으로 담화한 사건이 성경에는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방문 전도는 성서적이요, 사도적이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그가 공중 앞에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집집으로 가서 가르쳤다는 사실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재인식 시켰다.³⁹⁾ 그리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고 하였다.³⁹⁾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한 개인 심방 전도에 대하여 많이 언급되어 있다. 학원 복음화에 있어서도 방문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학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문은 다음과 같다.

가정방문 : 가정을 방문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을 준다.

애경사 방문 :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애경사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방문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고아원 방문 : 간혹 이웃돕기 헌금을 실시하여 어려운 고아들을 방문함으로써 기독교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복음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교도소 방문 : 수감자들을 찾아가 위로 격려하며 가르치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개심하게 하며 또 죄수들에게 죄성에 대하여 교훈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씨어 어트리는 방문자가 가져야 할 몇 가지 지침서⁴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방문자의 지침서

1. 심방의 목적을 분명히 할 것.
2. 기도를 할 것.
3. 형세가 심방에 호적해야 할 것.
4. 통속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
5. 성서를 꼭 지참할 것.

방문자가 꼭 피할 것.

1. 논쟁을 피할 것.
2. 상대방의 계락을 꺾지 말 것.
3. 방문자는 기쁨을 잃지 말 것.
4. 낙심하지 말 것.
5. 긴장하지 말 것.
6. 촉박한 결심을 요구하지 말 것.

39) 사도행전 5:42.

40) C. E. Autrey, *Basic Evangelism*, (서울: 침례회출판사, 1980), pp. 104-107.

7. 방문을 간략하게 할 것.

3) 모 임

학원 복음화에 있어서 모임은 큰 힘이 되는 것이다. 모이기를 힘쓰는 일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다.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들을 가질 수 있다.

1. 동·하기 수련회 : 연 2회 모임을 갖고 신앙 수련회를 할 것.

(기독교 학생 및 희망자)

2. 토론회 : 수시로 토론회를 가짐으로써 보다 폭 넓은 성서의 지식을 습득하게 할 것.

3. 성서연구회 : 대학에 있어서 성서 연구회는 전도 불씨를 양성하는 기회가 되게 할 것.

4. 종교부 씨클활동 : C.C.C., I.V.F. 등 기독교 활동을 통해서 개인 전도 및 교목활동을 돕는 일을 하고 늘 전도에 대한 작전 계획을 세우게 할 것.

4) 제자 훈련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을 보면 사랑으로 전도하고 봉사로써 전도하며 말씀으로 전도하였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자신과 같이 사랑으로 교제하며 전도하고 온정적으로 봉사하며 희생의 정신과 확신함으로서 복음을 선포하였다. 또한 12제자가 70인으로⁴¹⁾, 120명의 문도로⁴²⁾ 그리고 500여⁴³⁾ 문도로 자라 갔다.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⁴⁴⁾씩이나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믿는 무리는 5,000명으로 자라갔다.⁴⁵⁾

이와 같은 현상은 누룩의 역할과 같아서 가속으로 주님의 제자가 자라가는 현상이다. 우리는 자라게 할 수는 없으나 씨를 뿌리고 소금같이, 빛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며 죽어야 하는 곳에 죽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

학원 전도화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제자훈련을 하여서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이 제자훈련은 세포 조직과 같은 것인데 세포 조직은 그룹 형성인 것이다. 교목은 여러 종류의 작은 단체를 만들어서 철저한 제자 훈련을 하여 조직을 확대해 나갈 때 학원의 복음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제자훈련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전도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봉사하고 소의된 자의 친구가 되어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과감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교목은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전도단의 멤버로 삼아 조직을 확대함으로서 계속 일해야 한다. 그리하면 참된 누룩은 부풀게 되어 있다.⁴⁶⁾

41) 누가복음 10 : 1.

42) 사도행전 1 : 15.

43) 고린도전서 15 : 6.

44) 사도행전 2 : 41.

45) 사도행전 4 : 4.

4. 성서교육을 통한 전도

1. 하나님에 대한 사상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상으로 부터 출발한다.⁴⁷⁾고 하였다. 성서 있어서 압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오직 한 가지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다. 이 하나님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용어는 “여러 성서를 기록한 저자들에 따라서, 또 그들이 살고 있던 역사와 문화의 시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⁴⁸⁾ 하였다.

예를 들면 야웨(Yahwh), 엘로힘(Elohim), 엘(El), 엘샤다이(El Shaddai), 야웨 세바오트(Yahweh Sebaoth), 엘로아(Eloah), 엘리온(Elyon)을 찾아 볼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특징은 세기가 달라짐에 따라 특징의 강조점도 달라지고 다양성의 있지만 변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 삼위일체⁴⁹⁾ 신관은 기독교 특유의 신관이요, 교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사상이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 보혜사 되시는 성령의 삼위일체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해 계시되고,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은 그 위(person)에 성부, 성자, 성신 삼위격을 갖추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명하는 말이다.

이 삼위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초가 되어 있는 성구는 많이 있다. 구약성서에 있어서는 천지창조의 기사,⁵⁰⁾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사람의 이야기,⁵¹⁾ 예언자 이사야가 소명을 입을 때 드린 송영 삼창,⁵²⁾ 혹은 지혜 문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불 피우고 있는 사실 중에서 은연히 증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 명한 선교 명령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⁵³⁾되어 있으며 이 경우(εἰς τὸ ὄνομα)(eis to onoma)는 단수형으로 표

47) 이종윤, 신구약성경 개설(서울:총현출판사, 1982), p. 20.

48) Otto J. Baab,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박대신(역)(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4), p. 24.

49) 삼위일체의 트리아스(Trias)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은 안더옥의 주교, 테오필로스(AD 169경—190경 제위)이다. 라틴어로 트리니타스(Trinitas)라는 말을 신학 용어로 쓴 사람은 터툴리아누스(Tertulianus)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0) 창세기. 1 : 1—3.

51) 창세기. 18장

52) 이사야. 6 : 3.

53) 마태복음. 28 : 19.

며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란 다만 *Kai(Kai)*로 연결되어 있을 뿐으로써 이것은 삼위격의 일체성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신약성서에 있어서의 신앙과 증거는 초대교회에 자어서 요약된 신앙고백서로써 드러지게끔 되어 있고 로마교회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하여 형성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도신경(Apostles Creed)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으나 그 내용은 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신앙고백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서를 교육하되 기독교 특유의 심판인 삼위일체의 신관을 교육해야 한다.

2) 살아계신 하나님 : 성서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전형적인 용어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역사 가운데 행동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며, 구원이라는 위대한 일을 하시며, 인간들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인간의 생명 가운데 활동하시고 자연의 질서 위에 활동하시는 능력이신 그는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녕히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⁵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비울꼬”,⁵⁵⁾ “오직 여호와와는 참 하나님이지요, 사시는 하나님이지요, 영원한 왕이시다.”⁵⁶⁾

그러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민족의 조상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그의 큰 목적을 역사의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성취하신다고 하는 유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해야 한다.

3) 인격자 하나님 :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격적인 생명이라는 것이다.⁵⁷⁾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걸어가시고 말씀하시고 미워하시고 책망하시고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자기가 선택한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변적 논리의 세계에서 찾아지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체험되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며, 그는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의인화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종종 왕, 아버지, 목자, 재판관, 또는 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인격신이다.⁵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과 교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말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단순한 행동과 의식을 훨씬 초월한 인격적 생

54) 여호수아. 3 : 10.

55) 서편. 42 : 2.

56) 마태복음. 16 : 16, 히브리서. 3 : 12.

57) William Dyrness, *Themas in Old Testament Theology* (Inter Varsity Christian Fellowship of The U.S. A., 1979), p. 45.

58) 이종윤, *신구약성경해설* (서울 : 흥현출판사, 1982), p. 20.

명이다.⁵⁹⁾

신약성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인격을 가지신 참사람일 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임을 강조해야 한다.

4) 기록하신 하나님 :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열광적으로 노래하고 그 능력은 어떤 다른 신보다 우월하심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도가 기록하니 민족들 중에 알리라.⁶⁰⁾”고 외친다. “땅 끝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랄만한 능력을 경이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⁶¹⁾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찌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⁶²⁾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지존하시다.”⁶³⁾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은 영광과 최고의 권능을 나타낸다.⁶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롭고 총명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인간을 부르시는 인격적 존재이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의 생명과 인격성에 신성의 도장을 찍고, 이 세계를 향하여 그가 하나님되심을 선언한다. “이사야서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호칭의 24회나 사용되고 있다.⁶⁵⁾”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성은 그 앞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신성의 능력을 의미⁶⁶⁾한다.”고 하였다.

그는 거룩하시고 다른 신과 구별될 뿐 아니라 오히려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임을 역설해야 한다.

5) 영이신 하나님 : 하나님은 영이시니라⁶⁷⁾고 했다. 이 사상은 구약성서에서와 같이 신약성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 사상이다.⁶⁸⁾

속죄를 통하여 인간의 생명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시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은 영적 존재⁶⁹⁾라고 했다. 구약성서 가운데 나타난 “영”이라고 하는 원어는 루아하(ruach) 또는 네샤마(neshamah)라고 하는 말이다. 이는 호흡, 바람, 기질, 성질, 생물의 영, 하나님의 영 등 여러가지로 사용된다.

59) Otto J. Baab, *The Theolog of The Old Testament*, 박대선(역)(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54), p. 30.

60) 시편. 77 : 13-14.

61) 이사야. 52 : 10.

62) 시편. 99 : 2-3.

63) 시편. 111 : 9.

64) William Dyrness, *Themes in Old Testament Theology*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of the U.S.A. 19(9), p. 51.

65) Otto J. Baab,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박대선(역)(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4), p. 40.

66) Ibid. p. 40.

67) 요한복음. 4 : 24.

68) William Dyrness, *Themes in Old Testament Theology*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of The U.S.A., 1979), p. 47).

69) Otto J. Baab,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박대선(역)(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4), p. 45.

“악인은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멸망할 것이다.”⁷⁰⁾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 독을 덮으니”,⁷¹⁾ “오직 나는 여호와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⁷²⁾ “주는 나의 하나님이지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²³⁾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⁷⁴⁾라는 구약의 기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심을 알 수 있다. 이 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모든 사실과 하나님의 의와 구속과 개인적인 평안의 근원이 되심을 알고 교육해야 한다.

6) 창조주 하나님 : 이 사상은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성격의 최고의 관념이 아니라 해도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사상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⁷⁵⁾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효대로 만물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⁷⁶⁾라는 말씀에서 창조주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⁷⁷⁾라는 말씀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교육하는 교재가 되어야 한다.

이종운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세 마디로 요약했다. 첫째, 창조주되시는 하나님은 권능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둘째,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나타내 준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저자이시며, 동시에 그 운명을 지배하신다.⁷⁸⁾

7) 유일하신 하나님 : 성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있어서 명백하다.⁷⁹⁾

70) 욥기. 4 : 9.

71) 출애굽기. 15 : 8—10.

72) 미가. 8 : 8.

73) 시편. 143 : 10.

74) 시편. 189 : 7

75) 창세기. 1 : 3.

76) 이사야서. 40 : 26.

77) 이사야. 43 : 6—7.

78) 이종운, 신구약성경개설(서울 : 중현출판사, 1982), p. 20.

79) William Dyrness, *Themes in Old Testament Theology*(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of The U.S.A., 1979), p. 48.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⁸⁰⁾,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⁸¹⁾,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⁸²⁾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전 우주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이 하나님은 은혜롭고 인자하시며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권능과 능력으로 존재하신다. 고로 “나는 나다”라는 말씀은 지존자이심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간은 타율적 존재며 자율적 존재가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자율적 존재이다.”⁸³⁾

8) 주 하나님 :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위치와 기능을 최상으로 이끌어 올린 말이다. 하나님의 기능과 위치를 ‘주’라고 하는 말 이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역사 속에서 자기 목적을 성취시키시는 자연의 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주시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가 되신다.

9) 우리의 하나님 : 성경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의 무지와 죄악으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잡신을 따라가기도 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무나 돌이나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신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⁸⁴⁾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잘 나타나 있으며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재 또한 이터해야 한다.

윌리엄 디르네스(William Dyrness)는 신관을 하나님의 성품(Nature)으로는 인격적인 신, 영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논하고 하나님의 성격(Charcter)으로써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누어 취급하고 있다.⁸⁵⁾

2. 정확한 기독교론

우리가 성서를 교육할 때 신약성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교육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서를 교육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있다.

80) 신명기. 6 : 4.

81) 이사야. 45 : 18.

82) 이사야. 45 : 21-22.

83) 이종윤, 신약성경개설 (서울 : 중현출판사, 1982), p. 20.

84) 출애굽기. 3 : 6.

85) William Dyrness, *Themes in Old Testament Theology*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of The U.S.A., 1979), pp. 44-60.

1) 예언의 성취 : 처음 사도들은 선포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선포를 원어로 “케류그마”라고 부른다. 케류그마(마 12 : 41, 고전 2 : 4, 15 : 4)라는 말은 ‘공중 앞에 선포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이다. 이 말은 선포라는 뜻으로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선포한 선포의 내용을 가리킨다. 사도들의 케류그마를 요약해 주는 성구는 행 2 : 14—39, 3 : 13—26, 4 : 10—12, 5 : 30—32, 10 : 36—43, 13 : 17—41, 고전 15 : 1—7, 살전 1 : 10, 갈 1 : 3—4, 롬 1 : 1—3, 10 : 8—9절 등이다.

우선 바울의 케류그마를 종합해서 보면 구약성서에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예언자들이 말해 오던 그 날이 왔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여 성서에 기록된 대로 그가 죽으시고 우리를 악한 시대에서 구원해 내시려 하였으며 그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산 자와 죽은자의 의 주가 되시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실 분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케류그마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이 말해오던 그 날이 왔고 예수의 행적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행적과 고난과 부활이 성경대로 된 것이라고 사도들은 성공으로 증거하였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예수는 범 없는 자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셨으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죽음의 힘에서 놓여 성경대로⁸⁶⁾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고 주 그리스도로 삼으셨으며 왕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으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다. 예수는 예언자들의 예언의 촛점이 되는 것이다.

2) 당시 사람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고백 : 예수의 봉사기간중 그의 영혼과 실천에 의한 제기된 질문들이 많다. 그는 가망없는 중풍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⁸⁷⁾ 할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참람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⁸⁸⁾하고 물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잔잔케 하심으로 경악한 제자들에게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⁸⁹⁾하는 의문을 야기시켰으며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할 때 한 창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⁹⁰⁾고 물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듣고는 당황하여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고”⁹¹⁾하였고 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

86) 시편, 110 : 1.

87) 누가복음, 5 : 20.

88) 누가복음, 5 : 21.

88) 마가복음, 4 : 41.

90) 누가복음, 7 : 49.

91) 누가복음, 9 : 9.

는 누구요”⁹²⁾하고 물었다고 처음 복음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예수 자신이 교훈한 특징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⁹³⁾,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⁹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⁹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⁹⁶⁾ 이와 같은 성구는 예수 자신이 자신을 제시하는 자아중심적 특징이 있다.

이러한 가르침 후에 제자들에게 제시한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⁹⁷⁾, 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⁹⁸⁾라고 고백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누군고” “누구이기에”하다가 제자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교육하는 교재가 되어야 한다.

3) 예수님의 교훈과 그의 직접적인 주장: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특징은 번번히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되심에 대하여 언급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아버지의 아들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나라의 복음”⁹⁹⁾을 전파하고 다닌 것도 사실이나 자기는 천국에서 유일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자처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을 왕이라고 불렀다. (마태 13 : 41, 16 : 20, 20 : 21, 26 : 31, 34 : 40. 눅 20 : 42, 요 18 : 33—38)

예수는 선지자들의 세대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 그것은 그가 공생애의 생활을 기록한 첫 마디가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와졌다”¹⁰⁰⁾는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의 환상에서 유래된 이미 주어진 메시아적 명칭인 “사람의 아들”이란 명칭을 가졌다. 대제사장의 도전을 받았을 때(막 14 : 61—62)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칭을 가졌다. 대제사장의 도전을 받았을 때(막 14 : 61—62)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칭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구세주의 칭호로써 다니엘서에서 따온 말이다.¹⁰¹⁾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극치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직접적 주장에서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92) 마가복음. 21 : 10.

93) 요한복음. 6 : 35.

94) 요한복음. 8 : 12.

95) 요한복음. 11 : 25—26.

96) 요한복음. 14 : 6.

97) 마가복음. 8 : 29.

98) 마가복음. 8 : 29.

99) 누가복음. 4 : 43.

100) 마가복음. 1 : 15.

101) 다니엘서. 7 : 13—14.

4) 간접적인 주장 :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 주장과 똑같이 간접적인 주장에 의해서도 강력히 행하여졌다. 그의 행적이 함축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품격을 그의 명료한 진술과 다름없이 웅변적으로 입증한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에게나 속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이 갖는 특권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중 네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 첫째는 죄를 사해준다는 주장이다. 중풍병자에게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눅 5 : 20—21)”, 죄 있는 여인에게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눅 7 : 36—50)”하였다.

둘째는 생명을 준다는 것이다. 그는 그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요 6 : 35)”, “생명(요 14 : 6)”, “부활이요, 생명(요 11 : 25)”이라고 묘사하였다.

세번째로 진리를 교훈할 때 매우 단도직입적이고 독단적인 태도였다. 즉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는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막 6 : 3)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어법의 우아함에 주목하였다. (눅 4 : 22) 그들은 예수의 권위에 더 큰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마 7 : 28—29)고 했다.

네째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진기한 말씀이다. 그의 비유 중 몇 가지는 그가 세계의 종말에 재림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킬 것이며(요 5 : 28—29), 모든 나라가 그의 앞에 모일 것이며 모든 심판은 아버지께 의해 그에게 맡겨진 것이다(요 5 : 22)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되심을 찾아볼 수 있다.

5) 그리스도의 극적인 주장 : 여기서 극적인 주장이란 말은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내가 그로라”(요 4. 26)한 곧 그리스도가 구세주란 것을 예수 자신이 주장하고 교훈함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요 6 : 35).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 8 : 12)”라고 미리 말씀한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다. 그리스도만이 주린 자를 채워주고 시력을 회복해 주며 새생명으로 그들을 소생시키기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다.

3. 확실한 구원론

구원론(Soteriology)이란 인간의 구원을 다루는 신학의 한 부분이다. 이 구원의 개념은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이 만족하지 못한 상태가 무엇이든 간에 그 근원을 치료하는 문제가 구원론에서 다루어진다. 인간의 상태 속에 있는 그 무엇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다. 어떤 이는 “죄”라고 규정하고 어떤 이는 무지라고 한다. 만약 무지라고 할 때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필

요로 하며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후자와 같은 것은 일반적인 것에 불과하고 모두 전자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그 지식이 완전하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동등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고전 18 : 2)

기독교에서도 교파에 따라 다른 견해도 있으나 구원에 장애가 되는 근본적 요소는 죄이며,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제거시킬 수 없고, 또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이 성서의 교훈이다. 인간 본성을 부패케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 한다.

구원의 목적의 첫째는 인간을 회복시켜 그의 참 위치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¹⁰²⁾ 둘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¹⁰³⁾ 세째는 구원의 교리로써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다. 이 사상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¹⁰⁴⁾

다시 언급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구해낸다는 뜻이 있다. 구해낸다는 뜻도 인간의 최대의 불행, 화 받을 죄, 죄의 결과에서 생기는 죽음에서 구한다는 뜻이다. 죄로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정당한 관계와 성정의 혁신을 예수 안에서 유지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해낸다는 뜻인데, 피해자이신 하나님의 의사에 따라 하나님 자신이 세워 놓으신 죄 용서를 위한 조건이 있다. 이 사면함을 얻는 것을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으로 강림하셔서 이 세상에서 완성하신 사업이다. 예수께서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탄생하시고 생활하시며 교훈하시고 행동하셨다. 그러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구원의 사업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삶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삶이 된다. 그러나 특히 그의 생애, 교훈, 사업 중심의 최고봉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여기에 최대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 구원의 상징이 된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명확하고도 능력있는 구원의 표현이다. 이것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써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에 구원의 표현이 발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며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이겨내신 사랑의 승리였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고 영원히 사는 몸이 되셨으며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구원론의 철저

102) 히브리서. 2 : 10절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데 있다고 한다.

103) 요한복음. 6 : 10, 요한계시록. 22 : 17절에서도 같은 사상을 찾아볼 수 있음.

104) 디모데전서, 2 : 1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함.

히 교육하는 교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4. 구원의 종말론적 구조

종말론(Eschatology)이란 말은 세상 끝날에 대한 학문이다. 이 말은 우리의 지상 생활의 종국과 사후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사야 2:2, 미가 4:1절 등에서 나온 말이다. 구약에 있어서 종말론의 중심점은 메시아와 그 세계적인 평화와 정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반대 입장에 있는 속세에 대한 심판을 말한다.

신약에 있어서 종말론 사상은 예수는 종래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하였으며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자기와 관련시켜 유대인들이 기대하여 마지않던 그것이 성취되려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가끔 자기의 재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 사상 가운데 부활의 사상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사도들의 교훈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그들의 처음 교훈에 종말론이 현저했다는 것이다.¹⁰⁵⁾ 둘째는 영원한 생명의 희망은 부활한 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¹⁰⁶⁾ 세째는 이 희망은 땅 위에서의 발전 이상으로 영원한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하늘과 땅의 정신상의 구별은 전연 무시된다.¹⁰⁷⁾

프로테스탄트 신앙고백에는 종말론에 관한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죽음과 부활과 심판과 세상 끝날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역설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씨가 이 땅 위에서 사랑의 영혼속에 심어지고 그것이 내세에 있어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종말론에 대한 사상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성서 중심으로 생각하는 종말론이 담긴 성서교육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Ⅲ. 성서교육을 위한 교재

1. 성서교육을 위한 교재모델

성서교육을 위한 교재는 많이 있으나 대개 광범위하고 또 이미 믿는 신자나 신학생을 상대로 하는 전문적이고 세밀한 교재이다. 그리고 여러 기독교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성서교육을 위한 교재 속에 철학과 윤리, 교회사나 여러 교리를 함께 취급하고 있어서 순수 성서교육을 위한 교재는 아니다. 그리고 성서교육 교재라면 우선 성경이 주가 되어야 하고 그 속에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 지음받고 죄에 빠진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을 사랑하시고

105) 사도행전. 2:7, 3:20, 10:42, 17:30, 31.

106) 고린도전서. 15:, 에베소서. 1:18, 골로새서. 3:34.

107) 고린도전서. 15:, 베드로후서. 3:10, 요한계시록. 21:22.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이 첨가된 성서교육 교재를 필요로 한다.

이절에서는 성서가 어떠한 책이라는 것과 구약성서에서 신약성서에 이르는 구원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간을 살리시는 역사를 교육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되심과 구속주가 되시며 속죄주되심을 교육하는 작은 성서교육 교재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성서는 어떤 책인가(구원의 책)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성서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¹⁰⁸⁾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의 영감인요, 목적이란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데 그 유익이란 곧 인간 구원이다.¹⁰⁹⁾ 이렇게 볼 때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최대 목적은 독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Bible)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책(biblos)’에서 온 말이다.¹¹⁰⁾ 타락한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선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와 사랑의 대강령을 하나로 묶어서 소개하는 책이 곧 성경이다. 약 1,600년간 60세대를 통해서 왕, 농부, 철인, 의사 시인, 정치인, 학자, 어부 등 40여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성서는 예언자들의 예언과 예언의 성취,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이 연속성과 통일성을 이루며 기록되어 있다. 마치 우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구성단위로써 수많은 위성과 매개체로 조직되고 태양계의 위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 성경의 구성도 역시 하나의 구성단위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별들의 운행에 관한 것(욥 38 : 31-32), 공기의 무게(욥 28 : 25), 수문학의 기화와 액화(욥 36 : 27), 강수의 순환법칙(욥 36 : 28-39), 생물학적 기능에 있어서의 피의 중요성(레 17 : 11-15),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레 13 : 45-46), 위생법(신 14 : 21, 23 : 12-14), 바람의 순환(전 1 : 6-7), 태양과 태양계의 궤도 운행(시 19 : 4-6), 창조와 우주의 물리학적 사망(시 102 : 25-26), 기체의 응축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정전기(렘 10 : 13) 등 과학도 있고 여러고성의 궤파(수 2 : 1-24), 홍수(창 1 : 1-9 : 29), 헛족과 갈대아 우르의 폐사실왕(단 5 : 1-7 : 1, 8 : 1) 등 고고학적 역사도 있으며 고상한 문학과 철학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서의 구성단위는 될 수 있으나 성서의 맥은 아니다.

108) 디모데후서. 3 : 15—17.

109) John R.W. Stott, *Understanding The Bible*, 최낙재(역)(서울 : 한국성서유니온, 1957), p. 12.

110) 이성호(역), *성서교리핸드북*(서울 : 혜문사, 1969), p.3.

성서는 구원의 역사(History of Salvation)를 말해주는 것으로 큰 맥을 이루고 있다. 구원이라는 말은 구약에서의 '아샤', 신약에서는 '쏘테리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죄의 용서에 앞서 전 인류, 전 피조물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전부이지만 좁은 의미에서 보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 밖에 다른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다.¹¹¹⁾ 이것이 성서의 메시지 골자라 할 때 성서는 구원의 책이요, 성서의 맥은 구원의 역사인 것이다.

2. 성서에 나타난 구원 의미

구원이란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악과 고난의 상태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¹¹²⁾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친교로 회복하며 인간을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은혜를 표시하는 말이다.¹¹³⁾ 구약성서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는 인간이 그들이 믿는 종교로부터 받는 도움을 말한다.¹¹⁴⁾ 구원이란 미래 생활에서 악화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더욱 포괄적인 의미로는 현재의 제어할 수 없는 처지에서 호의적 권능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구원된 자는 의로운 자요, 회개한 자가 대상이 되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악을 범했을 때 저들은 회개함으로써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적으로부터의 구원, 포로에서의 귀환도 중요하지만,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 마음의 변화, 죄의 용서,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과 의(Righteousness)가 중요한 것이다.¹¹⁵⁾ 신약성서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는 병고침과 같은 일시적 은혜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¹¹⁶⁾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이요,¹¹⁷⁾ 그가 속죄사역을 하심으로 인간에게 주실 심령적 영원한 축복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던 것이다.¹¹⁸⁾ 이렇게 볼 때 구원의 본 뜻은 구해낸다는 뜻이요, 인간의 최대 불행과 화 받을 죄와 그 결과에서 생기는 죽음에서 구한다는 뜻이다.¹¹⁹⁾

성서에 나타난 구속의 때, 장소, 중보자, 그리고 그 대상을 살펴보면 성경 창세기에 있어서 최초의 시기 에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Adam)¹²⁰⁾을 구원해 주심을 볼 수 있고 출

111) 류흥기(편), 성서사전(서울: 감리교 총리원, 1960), p. 90.

112) 김세운, 구원론(서울: 성경읽기사, 1981), p. 9.

113) C.L.S., 현대성서사전(서울: C.L.S., 1979), p. 70.

114) Otto J. Baab,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박대선(역)(서울: C.L.S., 1964), p. 145.

115) 예레미야. 31: 31-34, 에스겔. 36: 26-28.

116) 마태복음. 9: 22.

117) 마태복음. 1: 21.

118) 이성호, 새성서대사전(서울: 성지사, 1978), p. 310.

119) *Ibid.* 310.

120) Adam: 성서에서 500회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은 사람(man) 또는 인류(mankind)을 의미한다. 이성호(편), 새성서대사전(서울: 성지사, 1978), p. 1478.

애굽기 에서는 주전 1280년경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약성서에서는 어제와 오늘과 미래에 있어 세상에서 예수께서 우리 각 개인 하나, 또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볼 수 있다.

이제 성서에 나타난 구원의 맥을 생각하며 성서에 나타난 초기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3. 하나님의 구속역사

1) 창세기를 중심으로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는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주시는 하나님(창 3:21), 범죄한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하나님(창 4:15), 홍수 때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 주시는 하나님(창 9:16), 흠어진 백성에게 오순절을 주시는 하나님(창 11:9, 2:1-13) 이시다. 창세기에 나타난 죄의 의미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죄를 통하여 모든 생명은 저주를 받았다.¹²¹⁾

구약성서에 나타난 죄에 대한 말들¹²²⁾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와같은 죄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셨다는 것이다. 성서의 맥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반역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으로 곧 범죄한 인간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다. 구원의 은총은 무한 방대하여 범죄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에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에 창조받은 인간이 창조 본연의 자세를 이탈하여 하나님을 싫어하고 도망하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어코 찾아 돌이켜 새 인간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2)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초기 하나님의 구속역사는 창세기 1-11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 인류의 기원과 타락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찾아오심의 진리가 있다. 제 2기의 하나님의 구속역사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노아의 아들 셈의 후예가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하는 민족이 형성되고 이 민족이 족장시대를 거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장성하게 되는 것이다.

121) 창세기. 3:5-7.

122) 구약성서에 나타난 죄에 대한 말은 하타(hata') : 맞추지 못하다(miss), 잘못되다(go wrog), 죄를 범하다(sin). 아온('awon 하타의 파생어) : 불의(iniquity). 페샤(pesha') : 불법(transgression) 로 아(ro'a) : 악(badness, evil). 마엔(ma'en) :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기를 거역하다(refuse to obey God's commands). 마아스(ma'as) : 물리치다(reject). 마라(marah) : 논쟁적(be contentious), 반역적(rebellious). 카샤(kashah) : 꾀꾀하다(hard), 목이골(stubborn), 뽐(rum) : 교만(haughtiness). 가바(gabah) : 우쭐하다(be exalted). 레샤(resha') : 사악한(wicked), 죄를 범한(criminal). 아브라('avlah) : 부정(injustice). 샤가(shagah) : 과실 죄(sin of error), 태만의 죄(inadvertence). 하마스(hamas) : 난폭(villence), 비행(wrong). 하랄(halal) : 모독하다(profane), 더럽히다(defile) 수그(sug) : 타락하다(backslide), 사라(sarah) : 얼굴을 돌리다(turning aside), 변절(defection). 아십('asham) : 반칙(offense), 죄책(guilt) 등이 있다.

창세기 12장으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구약성서를 조감도식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12-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사건으로써 족장시대를 기록하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는 애굽의 노예생활과 엑소더스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8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정착 및 사사들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무엘상 9장으로부터 열왕기상 12장과 역대상 10장에서 역대하 9장까지는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왕의 사기로써 통일 유다왕국 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와 역대하 10장에서 31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의 기록이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와 역대하 30장에서 36장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에는 유다의 몰락과 포로생활 및 포로귀환의 기록이다. 그리고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16명의 예언자들이 기록한 17권의 예언서는 대부분 분열왕국시대 이후 예언자들의 메세지이며 율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왕국시대의 지혜문서로 나타나 있다.

•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 :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고 번창하여 갔으며 요셉의 혈육이라는 이유로 각 지파에서 세운 지도자와 그들 자신의 풍습과 그들 자신의 고유한 종교를 가지고 특권을 가진 민족으로 지냈지만,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을 때 특별한 권리와 혜택은 빼앗기고 다른 농노들과 같이 외국적이고 이스라엘적인 요소를 박탈당하고 고의적인 멸시까지 받게 되었다.

애굽왕 람세스 2세가 국고성 비돔¹²³⁾과 라암셋¹²⁴⁾을 건축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데 흙이기와 벽돌굽기 등 여러가지 일로 괴롭게 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증가에 놀란 바로는 산파들을 명하여 히브리인의 가정에 남자 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바로의 명을 어길 때 이에 분격한 왕은 아기 중에 남자 아기는 누구든지 나일강 물에 던져 버리라는 야수적인 명령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¹²⁵⁾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어서 단순한 상거래만을 익혀 왔었다. 그러나 바로의 비도덕적인 강압 아래서 여러 종류의 일을 하여야만 했다.¹²⁶⁾ 이러한 고역은 고통임

123) 라암셋 2세가 애굽 하부 고센에, 이스라엘을 시켜 세웠던 국고성 중에 하나(출, 1:11). 애굽 이름은 피툼(Pitum), 곧 “툼의 집, 지는 해의 집”이란 뜻인데 “툼”은 해신을 가리켰다. 나일강에서 홍해로 통하는 운하 언덕에 지었는데 사방을 토성으로 두르고, 그 안에 “지는 해의 신, 출”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으며, 크고 작은 지하실을 많이 만들었는데, 여러가지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굉장한 성벽과 건물들을 다 벽돌로 쌓았는데 짙은 벽돌도 있고 짙지 않은 벽돌도 있다. 오늘은 “렐엘마스쿠라”라 부르는데 제12왕조 이래 늦게까지 사람들이 살았다. 하부 애굽 제 8주의 수도였다. 참고문헌. 류형기, 성서사전(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77), p. 412.

124) 이스라엘인이 세운 애굽의 국고성의 하나로써(출, 1:11). 제20주의 수부였던 점으로 보아서 고센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창. 47:11). 참고문헌. C.L.S.(편), 기독교대사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1), p. 238.

125) 출애굽기. 1:22.

126) 출애굽기. 1:44.

에는 틀림없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잠시 후 가나안으로 가는 사막의 노상 위에서 당할 고난을 이겨내는 훈련이 되었고 장차 건설할 독립국가의 강한 일군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마치 햄머에 두들겨 맞은 쇠붙이가 땅을 경작하는 단단한 보습이 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역은 오히려 유익을 가져온 것이다.

이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자유를 갈망하고 장막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독립국을 건설하려는 의욕을 북돋워 놓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이 당하는 노예로서의 고통과 인권유린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으며 이러한 고통 중에서 이들은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 모세의 출현과 출애굽 :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하여 학대를 받으면서 훈련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영도자가 될 아기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다. 레위 족속 중 아므람(고상한 백성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여자 요게벳 여호와와는 평가이라는 뜻)에게 장가들어 아기 모세를 낳았다.

그리하여 갈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강변에 버렸으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기 모세는 목욕하러 나일 강변에 온 바로의 딸이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양자가 되었다. 아기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게 되자 유모를 구할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재빨리 모세의 친어머니인 자기 어머니를 오게 하여 모세를 양육하게 하였고,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알고 있는 공주는 샴을 주며 기르게 하였다.¹²⁷⁾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된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최고 교육을 받았다.

성년이 된 모세는 어느날 하루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인에게 당하는 핍박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애굽인을 쳐 죽여 모래에 묻었다.¹²⁸⁾ 그러나 자기의 죄가 탄로나자 바로의 노함을 두려워하여 미디안¹²⁹⁾으로 도망하였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40년의 세월을 보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고독한 목자의 생활을 하는 동안 기도하고 명상하여 훈련하는 중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남을 보고¹³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새로운 사명감을 자각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계약을 맺은 하나님이라 하였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보고 그들이 부르짖는 간구를 듣고 그 우고를 알았기에 그들에게로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127) 출애굽기. 2 : 1-9.

128) 출애굽기. 2 : 12.

129) 미디안은 아가바만 부근의 아라비아 광야가 그 중심지로써 바다 건너 시나이반도까지 미쳤었다. 이 지방 사람들은 대상으로서 이웃 나라들과 무역하였고(창. 37 : 28) 이스라엘 사람과도 관계를 맺은 듯 하다(창. 37 : 25, 36). 모세는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하였으며 그곳에서 결혼하였다(출. 2 : 15-22, 민. 10 : 2). 참고문헌. C.L.S.(편). 기독교 대사전(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1), p. 332.

130) 출애굽기. 3 : 6-9.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지방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¹³¹⁾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하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보았으니 너는 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라고 명하였다. 자기의 힘과 지혜와 기술로써는 애굽의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야 하는 위대한 과업의 수행자로서 또 위대한 영도자로서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몇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유아 모세를 담아 나일강변에 버린 갈상자는 히브리말의 테바(tebah)라는 말이다. 이 말은 노아가 만든 “방주”¹³²⁾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인데 남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건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라야 가능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 4:10절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하는 음성을 듣고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위대한 과업의 수행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인간을 찾아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 성서의 맥을 잇어서는 안된다.

3) 신약성서를 중심으로

• 구원받아야 할 인간 존재

구원이란 구약에서는 “야샤(yasa)”라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쏘테리아(soteria)라는 말이다.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친교로 회복하며 인간을 속량하기 위해서 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은혜를 표시하는 말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 자신의 성정의 혁신과 정당한 관계를 유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¹³³⁾

구약성서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는 넓게 한다는 뜻으로 확대방면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악과 고난의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¹³⁴⁾ 악과 고난의 상태는 여러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개인적인 결핍, 이웃간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여러가지 갈등, 그리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국제적인 차원의 갈등 결핍의 현상과 고난의 현상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악과 고난의 상태가 왜 있는 것일까, 왜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종합되는 악과 고난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가 문제이다. 그 문제의 해답을 성서는 죄 때문이라고 한다.¹³⁵⁾

131) 출애굽기. 3:6-9.

132) 창세기. 6:15, 16, 출애굽기. 2:3.

133) C.L.S.(편), 기독교대사전(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1), p. 70.

134) Otto J. Baab,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박대선(역)(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0), p. 45.

135) 로마서. 3:23.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죄의 값을 사망¹³⁶⁾이라고 했다. 고로 이 죽음의 현상은 죄 때문에 오게 되고 죄를 지으면 댓가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죽음인 것이다.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이기에 죄를 지으면 죽음이 지어지는가.

죄란 남을 미워하는 생각으로 짓는 현상적인 죄, 욕을 하며 말로 짓는 죄, 때리는 행동의 죄 속이고 도덕질하며 법을 어기는 죄도 있지만,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옳지 않은 태도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¹³⁷⁾.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의존과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일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지음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인간을 지은 하나님께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의존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의존은 특권이 되고 순종은 의무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의존과 순종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오직 순종으로만 표현이 된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의존은 가짜 의존이며 미신이 된다.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우리 자신이 제시하는 길로 가는데 그것이 곧 죄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죄는 자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요, 자기의 주장이다.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Self:assertive will)로써 하나님에 대해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시간 등 자기의 제한된 자원으로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이 죄이다. 곧 하나님의 무한한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사랑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원죄와 실행죄가 있는데,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Self:assertive will)가 원죄라고 한다면, 원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써의 죄를 실행죄라고 볼 수 있다. 실행죄로써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죄,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가 있는데, 생각에서 말로, 행동으로 죄가 발달할수록 파괴력이 크게 된다. 이러한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죽음의 요소가 따라 다니는데, 마치 넓은 대지에서 죽는 것 같이 인간이 100년이란 짧은 인생을 마치고 죽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만일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고 또 영위할 수 있다면 구원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 속에 있

136) 로마서. 6:23.

137) 김세운, 구원론(울: 대학생성경읽기회, 1981), p. 10.

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 있고 우주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곧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힘이 와야하는 것인데 곧 무한한 힘을 가진 초월자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왔을 때만이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제한된 실존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 그리스도의 인격(기독교론)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생활 중에서 그의 교훈과 실천에 의해 제기된 첫 질문인 것이다.

예수님이 중풍환자를 향하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참람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요”¹³⁸⁾ 라고 하였고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잔잔케 하심으로 경악한 제자들로부터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¹³⁹⁾ 했다. 한 죄 많은 여인에게 “네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하는 것을 보고는 함께 앉은 사람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눅 7:49)라고 물었고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은 예수의 행적을 자세히 듣고는 당황하여 “요한의 목을 내가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고(눅 9:9)” 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막 21:10)라고 물었는데 초기 복음 저자들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기독교를 그리스도에게 출발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업적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워진 기초 반석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모든 상부구조는 근본적으로 몰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신성을 가진 인물임이 명백히 드러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다. 인간의 의무와 길, 사후의 생명, 구약의 목적과 권위, 그 십자가의 의미 등의 질문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런 것에 대하여 가르쳤고 또 그가 신성을 가졌다면 그 가르침은 권위가 있는것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첫째, 예수의 가르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수의 교훈에서 한 가지 특징은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불렀다. 성 바울 대사원의 전 사교(司敎)요, 종교법 고문관이었던 리돈(H. P. Liddon)씨는 “그의 가장 경이적인 제시는 그 자신이였다.”¹⁴⁰⁾고 하였는데 이 점이 바로 예수 그리

138) 누가복음. 5:20-21.

139) 마가복음. 4:41.

140) J.R.W. Scott, *Basic Christianity*, 윤상범(역)(서울:생명의 말씀사, 1982), p. 32.

스도가 세계의 다른 위대한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 “내가 진리니 나를 따르라¹⁴¹⁾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 : 35)고 하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 : 12)”,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교훈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이 있을 후 그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때 볼 것을 즐거웠하였으며(요 8 : 56), 모세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하였고(요 5 : 46), 성경이 자기에 대하여 증거하였고(요 5 : 39), 율법과 선지서들 그리고 시문서들은 자기에 관한 것¹⁴²⁾이라고 하였다.

또 예수가 자기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방문하였을 때 이사야 61 : 1-2절을 읽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눅 4 : 19:19)”고 하게 후 “이 글이 오늘날 너희가 듣는 중에 이루어졌느니라(눅 4 : 21)”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은 놀랄만 하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오기만 하면 지친 자는 짐을 던져주고,¹⁴³⁾ 주린 자는 배부르게,¹⁴⁴⁾ 목마른 자는 갈증을 면하게 해 준다(요 6 : 35, 7 : 3)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이런 독특성이 있다.

둘째, 그의 직접적인 주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니엘 선지가 환상에서 유래한 이미 주어진 메시아적 명칭으로 이 교훈은 그의 직접적인 주장이다.

셋째, 그의 간접적인 주장은 그의 사죄의 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풍환자에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¹⁴⁵⁾ 죄 있는 여자에게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¹⁴⁶⁾ 할 때, 방관자들은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참람하도다”라고하며 놀랐다. 그리고 자신을 가르켜 “생명의 떡(요 6 : 35)”, “생명(요 14 : 6)”, “부활이요, 생명(요 11 : 25)”으로 묘사하며 생명을 준다는 것이다(요 10 : 23). 그리고 그의 가르침 속에서 놀랐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는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¹⁴⁷⁾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했거늘 어찌 글을 아느냐?”¹⁴⁸⁾ 등에서 간접적으로 메시아적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141) 요한복음. 14 : 6.

142) 요한복음. 5 : 39.

143) 마태복음. 11 : 28.

144) 요한복음. 6 : 35.

145) 마태복음. 8 : 2.

146) 누가복음. 7 : 48.

147) 마태복음. 13 : 55.

148) 요한복음. 7 : 15.

네째, 그의 극적인 주장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그로다”¹⁴⁹⁾고 하는 주장이고 “내가 생명의 떡”¹⁵⁰⁾이라고 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알 수 있다.

•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구원론)

바울의 서신 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일어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즉 구약의 구속 방법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명했을 때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이해했다고 하면 신약성서에는 다음 4가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제사(Sacrifice) : 제사란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 그와 정상적인 절친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기원의 표시다.¹⁵¹⁾

옛날 이스라엘의 구원의 방법을 생각해 볼 때 1년에 한 번씩 구속의 날에 대체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짐승의 피를 언약 궤를 덮는 자비석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1년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 이 구약의 속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하였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속죄적 죽음을 고려한 사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제사였다는 사실이다. 제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덮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지 않도록 피로 덮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것이다(Propitiation).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이 우리 죄에 대한 덮어버림이 된 것이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버린 것이다.¹⁵²⁾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을 보면 예수님은 죄없는 자인데도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것은 곧 우리 죄를 대신 하여 저주를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진노함을 대신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은 제사의 용서를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이다.

화해(Reconciliation) :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조화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¹⁵³⁾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진노를 풀어버린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

149) 요한복음. 4 : 29.

150) 요한복음. 6 : 25.

151) 류형기, 성서사전(서울 :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리원. 1960), p. 731.

152) 갈라디아서. 3 : 13, 신명기. 21 : 23.

153) 이성호(편), 새성서대사전(서울 : 성지사, 1978), p. 221.

에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 화해가 된다.¹⁵⁴⁾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관계 곧 친구가 된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서로 반복하고 싸우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게 되었고 평화가 도래한 것이다. 평화(Shalom)란 내적인 주관적 평화의 느낌도 포함되긴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더 이상 적대하지 않는 객관적인 친분의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샬롬이란 단어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곧 하나님과 인간이 친구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빌어쓰게 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가 수립되는 것을 뜻한다.

구속(Redemption) :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내고 구해내는 것 즉 곧 희생을 의미한다.¹⁵⁵⁾ 옛날에 노예를 사고 팔 때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하면 전 주인에게 노예의 값을 치루고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몸 값을 치른 것이다. 죄의 노예된 우리를 죄와 사탄의 율법과 죽음의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의 대속물 즉 몸값으로 지불하고¹⁵⁶⁾ 우리를 살린 구속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한 것이다.

새 언약(New:Covenant) : 에스겔은 이 새 언약을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련시켰다. 새¹⁵⁷⁾ 언약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¹⁵⁸⁾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힘(자원)을 우리 것으로 쓰게 된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힘(자원)을 영원히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일어나 구원의 사건을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상 4가지 설명은 인간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서의 이 사건이 어떻게 나 개인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다음에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십자가 사건과 인간 : 하나님의 주관적인 구원의 사건이란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나 개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성서는 교훈하고 있다.¹⁵⁹⁾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유일한 수단인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인간의 종교적인 업적으로써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룬 구원을

154) 김세윤, 구원론(서울:대학생 성경읽기사, 1981), p. 31.

155) 류형기(편), 성서사전(서울:대한기독교 감리회 총리원, 1960), p. 78.

156) 마가복음. 10 : 45.

157) 에스겔. 37 : 21-18.

158) 김세윤, 구원론(서울:대학생성경읽기사, 1981), p. 32.

159) 로마서. 3 : 22.

믿음으로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조건인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데 이 믿음이 구원을 받는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내용을 외형적으로 표시한 행위가 세례인데 세례란 믿음의 극화, 곧 하나의 극(Drama)으로 표시한 것을 세례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된 그 사건을 극으로 나타낸 것이 세례이다.

이 세례는 물에 빠짐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므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로써 부활함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세례란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로써 부활함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세례란 단독으로써의 의미가 아니고 믿음안에 내포된 의미를 극으로 표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서 확실히 믿는 자가 되었다고 문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연합 시키는 역할을 하며 세례에 의해 잘 표현되는 것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덧입게 하는 수단인 것을 알 수 있다.

신앙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므로 믿음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됴됨(What he is)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What he has done)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할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주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된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주관적인 사건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의인됨(Justification) : 이 말은 본래 법률적인 용어로서 “무죄를 선고한다”, “사면한다”,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서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죄없는 의로운 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짐을 말한다. 구약의 율법적 의의와 관련해서도 썩어져 있으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신앙의 일대 중심이고 근본사상이다.¹⁶⁰⁾ 인간은 심판관에 의해서 무죄 석방을 받을 때 “의인됨”이 된다.¹⁶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인데 이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다.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의인됨”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는 우리 범 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¹⁶²⁾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가져다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예수

160) 로마서. 4: 13, 1: 17, 갈라디아서. 3: 11, 로마서. 5: 17, 21.

161) 김세윤, 구원론. (서울: 대학성경읽기사, 1981), p. 39.

162) 로마서. 4: 25.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내포되고 그의 됴됨(What he is)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의 하신 일(What he has done)이 우리가 한 일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예수의 완전한 순종—그가 하신 일—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가 죄를 짊어짐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일이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갖는데서 의인됨이 된다. 그러므로 의인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됨(Adoption) : 하나님의 아들됨은 가족관계에서 온 말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존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에 실패를 한 것이다. 곧 언약이 파괴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새언약을 세우셨다고 하였다.¹⁶³⁾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며 그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던 것같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아바”라고 부르게 했다. 이 말이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New Creation) :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다는 구원의 실재를 나타낸다. 즉 새로운 피조물은 옛 존재와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달아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이 되는데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¹⁶⁴⁾ 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곧 그의 죽고 부활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안에서 회복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교재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구원이 잘 설명되어야 한다. 곧 그의 십자가에서의 제사(Sacrifice), 화해(Reconciliation), 구속(Redemption), 새 계약(New Covenant), 의인됨(Justification), 하나님의 아들됨(Adoption), 새로운 피조물(New Creation)을 교육하는 교재가 되어야 한다.

• 구원의 종말론적 구조(종말론)

우리가 성서를 교육할 때 종말론을 교육하면 구원론이 더 확실해진다. 구원에는 구원의 세 시제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성경에는 구원의 시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쓰여져 있기도 하고¹⁶⁵⁾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¹⁶⁶⁾라고 미래형으로 쓰여져

163) 다니엘서. 7:13, 이사야서. 4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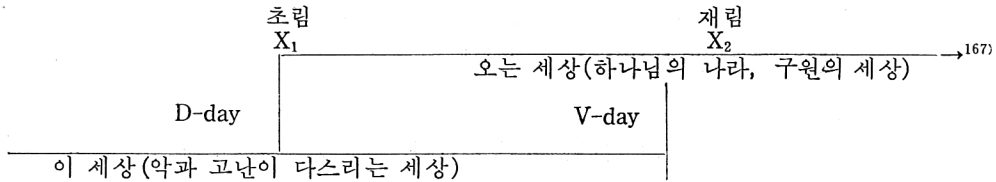
164) 고린도후서. 5:17.

165) 로마서. 5:1, 8:1.

166) 데살로니가 전서. 1:10.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의 독특한 종말론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다.

구원의 종말론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관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오는 세상, 구원의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주인 사탄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이긴 사건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승리했으며 예수가 주(主)라는 선포가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은 더 이상 예수를 이길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 남아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면 사탄의 힘은 언젠가 없어질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때라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 하시리니……”¹⁶⁸⁾라고 하였다.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사탄을 이긴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을 D-day(decisive-day)라고 하는데 이는 곧 결정적인 날이란 뜻이다. 이것은 2차대전 때 1944년 연합군이 노르만디 해안에 상륙을 성공적으로 한 날에 비유하는 데 연합군이 그때 결정적인 승리를 하여 전쟁이 사실상 결판이 난 날이라고 해서 D-day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난 것은 아니고 연합군이 독일군 수도인 베르린을 함락했을 때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났는데 그 때를 V-day라고 하여 승리의 날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전쟁의 결판이 난 날과 전쟁이 끝나 승리가 완성될 때 까지 많은 기간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관과 종말관과 구원의 구조 사상을 잘 설명해 주는 예가 되는 것이다. 종말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악과 고난 속에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간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 주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비움은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¹⁶⁹⁾라 하였고 바울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

167) George E. Ladd, *Gospel of the Kingdom*(Grand Rapids : Eerdmans Publishing Co., 1959), pp. 38f.

168) 고린도 전서. 15 : 25.

169) 요한복음. 17 : 15-16.

량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¹⁷⁰⁾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악과 고난의 어둠에서 건져내어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아들을 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옮겼다는 뜻이다. 이것이 곧 구원인 것이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고 사탄을 주라 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도(Ethos)—이 세상의 길,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곧 회개요 구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첫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요, 성령은 “보증”이라고 부른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인 성령을 받으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¹⁷¹⁾고 하였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세상에 돌아가지 말고 이 세상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정신에 순종해서 사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인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르는데 이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도, 곧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필연적인 것이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순종의 삶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도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길인데 이것은 또 영광된 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으로써 구원의 현재요, 성화인 것이다.

구원의 현재는 구원의 과거를 받은 우리가(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현재에 의인으로서(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스스로를 재확인하는 즉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천명하여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어가는(자기를 주장하는 옛 사람이 실제로 죽어가는) 과정이고 그와 동시에 부활로 새로워진 새 생명이 실제화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영광된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현재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더 이상 악과 고난과 죄의 시험에 허덕이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미래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파루시아(παρουσία)¹⁷²⁾요, 소망을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했다.¹⁷³⁾

170) 골로새서, 1:13.

171) 로마서, 12:2.

172) 그리스도가 세상 마지막에 임하시는 일을 가리킴. “재림”, “대림”을 말한다. 마태복음, 24:3. 데살로니가 전서, 4:15, 야고보, 5:7.

173) 로마서, 5:5.

· 기독교 확장(제자들의 활동)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제자들의 활동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어떻게 실천에 옮겼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바울의 역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누가가 보여 주려는 것은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활동하였던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활동과 연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첫째는 사도행전 1:1-8:4절까지 제 1기로써 유대인의 시대이며 이 시대를 유대적 기독교라고 하고, 중심 인물은 베드로이며 활동장소는 예루살렘이 된다. 그 후 30-37년까지 7년간 계속되는 이 시기는 기독교 진리의 깊이를 보여주는 시기이다.

둘째는 사도행전 8:4-12:25절까지 제 2기로써 과도기이다. 이 시대를 이방 기독교라고 하고 베드로와 바나바가 유대지방에서 그 후 37-47년간 10년 동안 계속되는 이 시기는 기독교 진리의 넓이를 보여주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셋째로는 사도행전 13:28장까지 제 3기로써 이 시대를 이방인 시대로 본다. 이 시대는 기독교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중심인물 바울이 로마를 중심하여 주후 47-63년까지 16년 동안 세계로 기독교를 확장해 가는 데서 기독교 진리의 깊이를 보는 것 같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가 어떻게 팽창되어 갔는가를 알 수 있다. 제자들의 동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오순절과 베드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련을 보면 처음엔 예수님과의 사귀의 초대였다.¹⁷⁴⁾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고¹⁷⁵⁾ 마침내 사도가 되었다.¹⁷⁶⁾ 그는 12제자 중 항상 수제자라는 명예를 차지했으며 특별히 예수님을 신적 메시야로 고백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며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

그의 인격을 나타내는 특별한 성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님에 대한 사랑(마 14:24-31) 세상적 사고방식(마 16:21-23), 영적 짧은 안목(마 16:27-17:70), 지나친 자신감(마 26:30-35), 인간적 자기 방어(마 26:46-54), 비겁함(마 26:67-74) 등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은 베드로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데도 주님은 복있는 자¹⁷⁷⁾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의 위대한 신앙고백과¹⁷⁸⁾ 오순절 때 일어난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지도자로서 일을 했고 많은 사적(행 1-12장)을 행하였다.

사도 바울의 회개와 활동: 사도행전 8:4절에는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174) 요한복음. 1:35-42.

175) 누가복음. 5:1-11.

176) 마가복음. 3:13-19, 누가복음. 6:12-16.

177) 마태복음. 16:17.

178) 마태복음. 16:16.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였고, 28:31절에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스테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전도 활동이 이방으로 옮겨졌는데 여기 스테반의 죽음이 사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는데 중요한 사건이 된다. 사실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사울의 회개이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신학을 해석하고 체계화한 사람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는 불세례, 물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다(행 9:20). 썩어져 가는 소아시아에 십자가의 맑고 깨끗한 생명의 물줄기를 끌고 간 사도이다.

• 사도들의 메세지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들의 설교를 예수님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의 메세지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와졌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¹⁷⁹⁾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도들의 메세지를 요약하면 “예언(구약)이 성취되었다.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 회개하라, 믿으라,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단체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들의 유일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그리스도의 현존을 통해서 그 단체는 발전하고 세계에 대하여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반대의 적을 사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¹⁸⁰⁾는 말씀을 지키며 메세지 선포를 위해서 고난의 길, 피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2. 교육 실시에 있어서의 기술

오늘날 대학 지성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종교철학적인 시도, 종교현상학적인 접근, 문화적인 시도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소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교육실시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의 기술에 돌리고 성서교육 교재에 있어서는 성서로 성서를 교육하는 성서신학적 입장에서 교재를 시도했으면 한다.

성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다. 서구 문명 세계의 종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성서가 끼친 영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개신교에 있어서 신앙은 오직 성서만(Sola:Scriptura)으로 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성서교육 교재도 성서만으로 교재를 편성하되, 교육 기술에 있어서는 다양성의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179) 마가복음. 1:15.

180) 마태복음. 28:18-20.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성서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성서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성서교육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성서교육을 위한 분위기

성서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책이다. 어떤 의미에서 성서는 다른 책과 같은 방법으로 읽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성서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높은 사상을 기술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서 전달하신 기록이 성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증명은 힘들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서는 독특한 책이고 읽혀져야 하고 가르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읽고 전하는 것 같이 교육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서교육은 다음과 같은 자세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1) “성서는 하나님에 대한 책,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책”¹⁸¹⁾으로써 인간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서의 한 페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증거로써 추구되어야 한다.

성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따라서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2)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성서는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교육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인디안 농부에게 외아들이 있었다. 그는 그를 부양하게끔 아들을 교육시켰는데 아들은 목회 훈련을 받기를 열망하였다. 이 말은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부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관례에 따라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아들을 목회 훈련에 보낸 것과 같다.¹⁸²⁾

3) 성서는 신앙 가운데서 교육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를 믿도록” 인간을 인도하시는 역사속에서의 하나님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이 기록은 성서를 교육받는 사람들이 믿도록 한 것이다.¹⁸³⁾

성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바를 인간에게 설득하고 결단을 내리도록 하고 인간이 “예”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성서에서 빼어낼 수 없는 반력자는 성령”¹⁸⁴⁾이라 했고 칼빈(John Calvin)도 성서는 하나님의 말

181) Miller D.G. *Introduction to the Bible* (S.C.M. press, 1959), p. 144.

181) *Ibid.* p. 14.

183) 요한복음. 20 : 31.

184) Miller D.G., *Introduction to the Bible*, p. 147.

씀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이는 알 수가 없다”¹⁸⁵⁾고 하였다.

4) 성서는 기도 중에 교육되어야 한다. 기도는 성령 앞에 우리의 생명을 열어 놓음이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신앙의 선물을 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¹⁸⁶⁾는 성서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다.

성서는 인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자신이 현현의 매개체가 된다.

5) 성서는 교제 가운데서 교육되어야 한다. 이 말은 개인적인 고립 속에서 교육되는 것보다 어떤 집단과 함께 교육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곧 개인적으로 교육할 수도 있으나 교제 가운데 개별적인 확대하고 교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6) 성서는 순종함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와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¹⁸⁷⁾라고 동의한다. 이같은 방법 외에 어떤 방법도 진실한 성서교육으로 적합치 않을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이 성서를 교육하는데 분위기가 알맞지 않으면 우리의 성서교육은 헛된 것이 된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은 성경 교사의 깊은 신앙과 기술이라고 생각된다.

2. 성서교육의 방법

성서교육의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성서교육의 방법도 중요하다. 여기서는 성서교육 방법을 논해 보고자 한다.

1) 조감도식으로 본 성서

조감도식으로 본 성서교육이란 망원경식 성서교육을 말한다. 이 말은 성서 전체에 주목하지 아니하고는 만족한 성서교육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대를 거쳐 그의 백성과 더불어 백성을 위해 이룩하신 긴 드라마이다. 이 연극의 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 속을 흐르고 있는 전체의 맥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든다면 예언자들의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이들이 맡았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예언자들의 상류 생활에 대한 시끄러운 도전의 진실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서 가운데 어느 한 권의 책을 연구하기 전에 각 권이 전체에 속해 있으므로 전체 이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설적인 글을 주의깊게 교육해야 한다.

2) 성서 각 권의 교육

조감도식 성서교육이 망원경식 성서교육이라 한다면 성서 각 권의 교육은 현미경식 성서교

185) *Ibid.*, p. 147.

186) 누가복음. 11 : 9.

187) 창세기. 24 : 3.

육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서는 한 권의 책이지만 사실은 전체 66권의 다른 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권은 전체 이야기에서 개별적인 위치와 특성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살 때 먼저 외형을 보고 그 다음 집안에 들어가 일층, 이층을 본 후 다락과 지하실을 보는 것처럼 성서교육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각 권의 교육을 마친 후 계속 단위의 연구, 해석의 지침, 주제의 연구, 인물의 연구 순으로 교육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교육 방법도 만능이나 결정적인 것은 없다. 왜냐하면 한 가지 방법이 모든 측면, 성서의 모든 분야에 똑같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방법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광석에서 금을 뽑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의 최종적 결과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서교육 방법의 제시도 사람들을 주 예수께 인도하는 한 방법의 요소에 불과한 것이다. 다만 성서교육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것”을 알게 하는데 있다.

IV. 결 론

학원 전도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적인 삶을 강조하고 신앙상담을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개인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함으로써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여기에 성서교육은 더욱더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독자를 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구약성서이며 약속된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신약성서이다. 그리고 구약성서는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며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다. 여기 가르치라는 것이 교육이요, 전하라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바울은 젊은 디모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였다.

예배·상담·전도·방문·모임·제자훈련, 성서교육은 학원 전도의 원동력이 되고 복음화의 기구이다. 이와같은 원동력과 기구로써 최선을 다하면 학원전도로써 복음화는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성서교육 교재를 위한 신학적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상과 정확한 기독교론, 확실한 구원론, 구원의 종말론적 구조를 다루었고 성서교육을 위한 교재 모델에서 성서는 어떤 책인가, 성서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논하였으며 끝으로

교육실시에 있어서의 기술을 논하였다.

성서교육의 제일 목적은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생각을 알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간은 성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날 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성서교육 없이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였다(딤후 3:15). 구원의 소식이 담긴 성서교육을 위한 좋은 교재는 학원복음화의 원동력이며 그리스도를 위한 무기가 된다고 확신한다.

Bibliography

- Anderon(ed). Ray S. *Technological Foundation for Minist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9.
- Autrey, C.E. *Basic Evangelism*.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9.
- Baeward, S. *Introduction to the Old New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Bright, J. *The Kingdom of God*. Nashville: Abingdon Press, 1953.
- Calvin, John. *Old,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Publishing Co., 1972.
- Colin, W. Willams. *New Directions in Theology Today, Volume IV The Churc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
- Crim, K.(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ashville: Abingodon press, 1976.
- Cripps, F.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Amos*. London: SPCK., 1919.
- Dooren, V.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company, 1650.
- Dumme[ow](ed), *The One Volume Bible Commentary*. New York: Macmillan, 1959.
- Edward, W.B.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 Foreman, K.J. *What is the Bible*. Bloomsbury street. London: SCM. Press Ltd, 1962.
- Harrison, R.K.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Pbulishing Co., 1969
- Jacob, Edmond.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Harper and Row, 1958.
- James, F. *Personalities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Macmillan, 1954.
- Kelber, W.H. *Marks Story of Jesu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 Kelly, B.H. *The History of the People of God*. London: SCM. Press Ltd., 1962.
- Kittel, Gerhard(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7.
- Lawrence, O. Richards. *A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5.
- Martens, E.A. *Plot and Purpose in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r: Inter-Varsity Press, 1981.
- Metzger, B.M. *How We Got the Bible*. London: SCM Press Ltd., 1962.
- Miller, D.G. *How to Study the Bible*. London: SCM Press Ltd., 1962.
- 김세윤, 구원론, 서울: 성경읽기사, 1981.

- 김영한, 기독교신앙개설, 서울:형설출판사, 1982.
- 김윤국, 구약세계역사, 서울:기독교문사, 1959.
- 김형태, 기독교 교육의 기초, 서울:대한예수교장로교회, 총회교육부, 1981.
- 나일선, 교회성장의 원리, 서울:아세아 교회 진흥원, 1980.
- 문희석, 하나님의 구속역사, 서울:보이스사, 1975.
- 박성수, 현대인의 심리와 카운셀링,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2.
- 박창환, 성서개론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5.
- 서광선, 종교와 인간, 서울:이화여자대학출판부, 1983.
- 이상근, 신약성서주해,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61.
- 이종윤, 신구약성경개설, 서울:정음출판사, 1982.
- 장중열, 교회성장과 선교학, 서울:성광문화사, 1979.
- 최재경, 임상목회학, 서울:기독교문사, 1975.
- 도로군, 함성국(역). 아모스의 연구,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3.
- 리셀, 임태수(역). 신구약중간시대, 서울:퀸폴디아사, 1975.
- 르바, 정정숙(역). 기독교교육의 기초, 서울:세광문화사, 1980.
- 로만, 신인현(역). 신구약개론,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0.
- 브리스터, 민병소(역). 카운셀링과 정신의학의 대화, 서울:성광문화사, 1981.
- 스튜어트, 김정준(역). 예수의 생애와 교훈, 서울:기독교출판사, 1977.
- 아담스, 김용순(역). 기독교 상담교본, 서울:보이스사, 1982.
- 아담스, 정정숙(역). 목회상담학, 서울:세광문화사, 1980.
- 안토, 지원상(역). 신약의 역사, 서울:퀸폴디아사, 1977.
- 압바, 허경삼(역).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1.